새해부터 코스피 불장…1분기 '꿈의 5000시대' 오나

이틀 연속 4300·4400선 잇따라 깨며 사상 최고
환율 우려 완화·반도체 실적기대 속 외인 순매수

'붉은 말의 해'인 2026년 첫 거래일부터 이틀 연속 코스피가 100p 단위로 마디지수를 갈아치우며 불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원전과 방산 등 호실적이 입증된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거세게 유입된 결과로 보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47.89p(3.43%) 급등한 4457.52로 장을 마쳤다.

76.29p(1.77%) 오른 4385.92로 출발한 코스피는 곧바로 4400선을 넘어섰다.

바로 전날 2% 넘게 급등해 전인미답의 4300선을 뚫었는데, 그에 따른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4400선을 넘어 4500선까지 바라보게 된 것이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일부 증권사들이 제시한 올해 코스피 상단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기할 지점은 국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뉴욕 증시는 나흘 연속 약세를 보이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이다.

지난 2일 뉴욕 증시에서는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업종 내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코스피가 불장을 이어가는 배경을 가늠해볼 수 있어 보인다.

미국 '빅테크'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갔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10% 급등하는 등 반도체주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따른 실적 기대감 속에 확연한 강세를 보였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AI) 기대감을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가 (뉴욕증시에서) 빅테크와 반도체 업종 수익률을 가른 원인"이라면서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했던 미국에 이어 한국도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은 각각 800조원과 500조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원자력과 방산 등 호실적을 보이는 산업재도 큰 폭으로 반등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특히 거셌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22일 이후 이날까지 8거래일 동안 단 하루(2025년 12월 30일)만 빼고 내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환율안정 대책 발표에 따른 원/달러 환율 변동성 감소로 외국인의 한국 주식 투자를 저해하던 원화 약세 문제가 다소 해소된 데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2025년 4분기 잠정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등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가 깜짝 강세를 보이면서 일각에선 '코스피 5000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도래할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작년 11월 초 고점에서 시작된 조정 국면을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를 재개했다"면서 "2026년 영업이익 전망도 (작년) 9월 초 305조원에서 402조원대로 96조4000억원 레벨업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 5000 시대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면서 "예상보다 강하고 빠른 실적 개선 기대와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 상승세로 1분기 중 5000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정일선 광주은행장, 취임 첫날 '현장 속으로'

산업장 방문·소상공인 간담회
지역 밀착형 상생 금융 행보

정일선 신임 광주은행장이 취임 첫날부터 지역 기업과 외국인 지원기관 등을 만나 민생을 살피는 현장경영에 나섰다.

정 은행장은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지난 2일 광주 하남산업단지에 위치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호원(회장 양진석)을 방문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상징적인 일정을 소화했다.

정 은행장은 "지역에서 꾸준히 성장해 온 기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 그동안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지역 기업이 성장해야 지역 경제도 함께 살아난다. 광주은행 역시 지역의 생활 속에서 역할을 다하는 은행으로, 현장과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정일선 광주은행장(뒷줄 왼쪽 네번째)이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에서 외국인 지원 관련 관계기관 합동 차담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외국인 지원 관계기관 합동 차담회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지역 밀착형 금융 행보를 이어갔다.

정 은행장은 광산구 흑석동에 위치한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에서 외국인 지원 관련 관계기관 합동 차담회를 주재했다.

차담회에는 정 은행장을 비롯해 외국인금융센터장, 광주시청 다문화지원팀·인재양성팀 관계자,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계자, 광산구 외국인 명예통장 등이 참석해 외국인 주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금융과 행정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 은행장은 "외국인 주민 역시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광주은행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 서비스와 관계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충장로5가에 위치한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에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갖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광주시상인연합회 회장, 충장상인회장, 충장5가 번영회장, 충장동 주민자치회장 등 참석자들은 고금리·고물가 환경 속에서 체감하는 경영 부담과 금융 이용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대출 이자 부담 완화와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 은행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광주은행과 가장 가까운 동반자"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상품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1년 새 45개 그룹 총수 주식재산 35조↑

1위 이재용 25조8700억

최근 1년간 국내 주요 45개 그룹 총수의 주식평가액이 35조4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재산은 13조9000억원 넘게 증가하며 이달 초 주식평가액이 25조87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지난해 1월 2일과 이달 2일을 기준으로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추이'를 조사한 결과, 이 기간 45개 그룹 총수의 주식평가액은 작년 초 57조8801억원에서 올해 초 93조3388억원으로 1년 사이 35조4587억원(61.3%) 증가했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지정한 92개 대기업집단 중 올해 초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 이상인 총수 45명이다. 이 가운데 1년간 주식평가액이 우상향한 총수는 41명(91.1%)에 달했다.

최근 1년 사이 가장 눈에 띄게 주식평가액이 상승한 총수는 이재용 회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이 보유한 작년 초 주식 가치는 11조9099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0월 들어 20조원을 돌파한 뒤 올해 초에는 25조8766억원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 기간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치는 5조2019억원 수준에서 1년 새 7조3158억원 이상 급증했다.

연합뉴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광주청 간부들과 함께 광주공원 현충탑, 4·19혁명 기념탑,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며 첫 업무를 시작했다.

"공정하고 합리적 국세행정 펼치겠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 신년 참배·시무식으로 각오 다져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광주청 간부들과 함께 광주공원 현충탑, 4·19혁명 기념탑,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며 첫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청장은 특히 지난 2일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방명록에 '2026 병오년에도 5·18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지방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고 적으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

이어 열린 시무식에서도 지속적인 국세행정 혁신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광주국세청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KT 위약금 면제에 번호이동 급증

추가 보조금·페이백까지…개통 지연사례도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이동통신 3시간 번호이동이 활성화되면서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 위약금 면제 기간을 기회로 유통시장에 추가 보조금을 공격적으로 풀면서, 단통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잠잠했던 이동통신 시장이 다시 요동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서울 창동의 한 대리점에서는 KT 이용자가 출고가 179만원인 아이폰17 프로를 구매할 경우 6개월간 10만원 이상 요금제, 파손보험 등 부가서비스 가입 등을 전제로 SK텔레콤으로 이동 시 약 71만원, LG유플러스로 이동 시 약 48만원에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아이폰17, 갤럭시 Z플립7, 갤럭시 S25 울트라 등을 사실상 '공짜폰'으로 구매했다는 후기도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단말기 가격 지원을 넘어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차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한다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대전의 한 대리점에서는 기존 단말기를 유지한 채 유심만 이동해 SK텔레콤을 개통한 고객이 월 2만4750원씩 1년 약정과 결합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45만원, 단독 이동 시 35만원의 페이백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 이후 페이백 금액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페이백의 실질적 재원은 통신사에서 나온다는 시각이 업계에서는 우세하다.

KT 이탈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나흘간 KT를 떠난 가입자는 누적 5만2661명으로 집계돼 일평균 1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KT 발 번호이동이 급증하면서 전산 장애도 발생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KT에서 SKT와 LG유플러스로 향하는 번호이동 처리 과정에서 '응답 제한 시간 초과'가 발생해 한동안 지연이 빚어졌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 또 직격

"후보군도 '골동품' 돼"…쿠팡 고금리 대출엔 "갑질 상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5일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차세대 후보군도 에이징돼(나이가 들어서) 골동품이 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또 쿠팡파이낸셜 '고금리 장사'와 관련해서는 "정밀하게 현장 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과 관련해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른 유통플랫폼은 익일 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며 "납득이 안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설명했다.

쿠팡 본사 점검과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실무라인과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달 중 가동될 금융지주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 "이사 선임 과정,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이사와 CEO의 임기 등 3가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BNK금융지주 검사에는 "9일 1차 수시검사 결과를 보고 추가로 살펴보려 한다"며 "그 결과를 보고 금융지주사 전반으로 확대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에는 "(지주사가)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게 되는데, 회장들이 너무 연임을 하다 보면 그 분(차세대 후보)도 6년씩 기다리게 된다"며 "그러면 그분들도 결국 에이징이 와서 '골동품'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은 지역본부, 설 특별자금 300억 푼다

26일부터 중기·자영업 대상 대출 연 1% 저리…최대 5억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설 명절 특별자금'을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300억원이며,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으로는 600억원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억원 이내로,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하다. 지원기간 중 금융기관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의 일부(최대 50% 이내에서 비례 배분)를 저리(2025년 12월 기준 연 1.00%)로 금융기관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 지역은 광주시를 비롯해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와 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영광·장성·함평·화순군이다.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할지역 소재 업체에 대해 대출을 실시한다.

또 약국(한약국)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서비스업, 주차장 운영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교육·보건업,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제외 업종으로 분류된다.

엄재용 기자